

예수님의 강력한 비전 (마태복음 24:1-14)

우리는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인공지능, 트랜스 휴머니즘, 로봇공학, 데이터 보안 분야에서 최첨단이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다양한 관계를 탐색하려고 노력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부하고, 일하고, 우정을 쌓아가고, 결혼하고, 자녀를 갖고, 교회 가족과 연결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 속에서 긍정적인 미래의 그림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것을 가장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나는 내 앞에 놓인 모든 도전에 맞서야 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번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잠언 29:18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낙담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전을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낙담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구축할 기반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소망을 잃으며 낙심합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분은 우리의 가장 깊은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제공하려고 노력한 “방 안의 코끼리” 설교 시리즈를 살펴보십시오 - 그래픽).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의 복잡한 시대와 관련된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가고 그분께 신실하게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 자신이 보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다섯 가지 설교 중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감람산에서 설교했기 때문에 “감람산 강화”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흐름 속에 모든 것의 끝을 보시며, 그날 제자들에게 전하신 메시지와 재림 사이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가까운 미래의 사건, 먼 미래의 사건, 그리고 이 두 사건 사이의 시간에 대해 예언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바탕으로 저는 다음 세 가지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통적인 비전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
2. 포괄적인 비전 (역사 전체에 대한 예수님의 비전)
3. 강력한 비전 (예수님의 비전에 기초함)

시작해보겠습니다. (1) 공통된 비전.

고난주간, 화요일 늦은 오후,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으로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주의를 성전 건물의 아름다움으로 이끌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중 한 제자는 “스승님, 보십시오. 돌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건물들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마가복음 13:1) 라고 말합니다. 거대한 돌들(사원 사진). 흰 대리석. 금으로 덮인 웅장한 건축물. 제자가 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들 생활의 중심지이며, 건축의 경이로움이자, 국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헤롯 대왕 치하에서 성전 재건 과정이 진행 중이었으며, 도시 면적의 1/6을 차지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을 때, 재건 과정은 이미 50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의 말씀을 기대했습니다.

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은 제자들을 놀라게 하고 당혹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재건 사업은 주전 20년에 시작되어 주후 64년에야 완료되었습니다. 84년에 걸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파괴될 것인가요? 그 모든 인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었나요? 왜 그럴까요?

이전에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예수께서는 종교 제도 전체를 비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 성전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이고 예언적인 말씀은 성전이 완공된 지 불과 6년 만인 주후 70년에 성취되었습니다. 그 해에 티투스 황제가 이끄는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념하는 티투스 개선문(사진)이 오늘날까지 로마에 남아 있습니다.

공통적인 비전은 우리 모두가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비전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 포괄적인 비전 (역사 전체에 대한 예수님의 비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고난 주간의 하루가 끝날 때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을 가로질렀습니다(사진). 감람산에서는 성전 지역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다가와 질문을 합니다.

3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나아와 이르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1)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2) 주의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원어에서는 “오심”과 “끝”이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다가올 일을 준비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사건들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한 시간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의 세월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떤 관점과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질문에서, 성전의 파괴를 세상의 종말과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읽으면서 우리는 가까운 사건인 성전의 파괴가 더 먼 미래의 사건, 즉 예수님의 재림, 최후의 심판, 모든 것의 완성을 의미하는 “세상의 끝”을 예표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약하자면, 예수께서는 재림 전 시대 전체를 특징짓는 네 가지 조건을 보십니다.

- a. 영적 미혹(4-5절)
- b. 수많은 재난(6-8절)
- c. 특정한 차별(9-13절)
- d.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14절)

첫째, (a) 영적인 미혹입니다.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제자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경고입니다: "삼가라!" 또는 "주의하라!" 우리는 속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단순히 몇 명이 아니라, 매우 많은 사람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며 날짜까지 지정할 것이라고 추가로 설명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모두,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 "내가 그다"라고 하며 자신이 신적 존재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의 인격과 구원 사역을 대적하는 사탄의 영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일서 4:2-3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참조, 요한일서 2:18-27).

적그리스도의 영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24장)
-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심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 (요일 4장, 예: 조셉 스미스, 모하메드)
- 교회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들 (교황이나 목사)

이어서 예수님께서서는 (b) 수많은 재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6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준비하십시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래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서 필연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때에 올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완전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한 뜻을 성취하시는 동안에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것입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대적할 것입니다. 나라는 나라와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 또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어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서는 안 됩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격변은 심지어 규모가 클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산고의 시작"일 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고 영원하게 이루기 전에 있을 극심한 고통을 묘사했습니다. 출산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통은 파도처럼 반복해서 밀려옵니다.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아기가 언제 태어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5번째, 7번째, 50번째, 100번째 진통에서 태어날 수도 있음), 분명한 것은 아기가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전 세계적인 고난에서 그의 제자들이 받게 될 (c) 특정한 차별과 박해로 초점을 돌리십니다.

9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환난이란 “바위 밑에 깔려 있는 것과 같은 극심한 압박”을 의미합니다. 일부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에서 사도 요한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말하며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 때문입니다(그들이 누구인지 때문에). 이는 로마 제국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계속되어 왔습니다.

기독교인은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종교 집단입니다. 2024년, 3억 8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신앙으로 인해 극심한 박해와 차별을 받았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7명 중 1명
- 아프리카에서는 5명 중 1명
- 아시아에서는 5명 중 2명

2024년에는 4,476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당했고, 7,679개의 교회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설교를 작성하는 중에, 저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기독교인 70명이 참수당했고, 이란 목사가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 전역에서 112개의 교회가 불타거나 훼손되거나 모독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무게를 이해하지만, 적어도, 왜 거의 완전한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지 물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112개의 모스크나 112개의 정부 건물이 불타거나 파손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카더스 연구소(Cardus Institute)는 헌신적인 캐나다 기독교인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해 왔습니다. 기독교 자선 단체와 비기독교 자선 단체 모두에 대한 대부분의 기부와 자원봉사는 헌신된 기독교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조롱당하고 적대적인 반응을 경험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미움을 받았으니 너희도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적대감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사람이 "실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넘겨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세상 속에서 단지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겪게 되면, 그들은 믿음이 더 이상 세상에서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고, 그 결과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도 끊게 됩니다. 그렇게 형제자매였던 사람들을 정부나 권력자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은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케네스 코플랜드, 폴라 화이트 등과 같은 변영신학 설교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영적 미혹입니다.

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민족 간의 증오, 국가 간의 전쟁, 부정당하는 진리,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불법과 혼란이 증가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가요?

역사를 통틀어 각 사람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도덕적 재앙이 따릅니다. 사회가 붕괴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언어는 죽습니다. 사랑은 식어갑니다. 재정의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사랑이 어떻게 재정의 되었는지가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 불치병자, 가난한 자, 노인에게 '의료 조력사'를 하고, 그것을 사랑의 이름으로 '완전한 삶의 돌봄'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MAiD를 선택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력한 비전은 무엇인가요?

강력한 비전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견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비전은 포괄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적 순간을 포함하여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3) 강력한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 28:20).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고난을 통해 거룩해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교회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나타내는 가장 명확한 표시는 이것입니다.

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ethne)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끝이 올 것입니다. (d)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맡기셨고, 우리는 그것을 말과 행동을 통해 나누어야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저 세상 속에 존재하며, 선한 일을 행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말하라." 라고 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며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사랑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다.

만약 우리가 말하지 않고 행동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결코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비전은 오늘 윌링던 교회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우리도 건물에 감탄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Willingdon과 Austin Heights 캠퍼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 그러나 이 건물들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만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제자 삼고, 치유하고, 파송됨을 통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명의 가족: 모든 사람, 매일, 모든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사명의 신앙입니다.

2021년 4월, 팬데믹 이후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Willingdon을 향한 말씀을 이사야 37:30-32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장로들과 목회자들의 기도로 확인되었습니다.

30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31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32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첫 2년(2021년 7월~2023년 7월) 동안,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년 동안 우리는 모든 사역이 성장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Willingdon 교인들이 대면 예배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새로운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장에 동행하며, 새로운 일꾼(직원과 자원봉사자)을 양성하고, 소속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영하신 것처럼, 오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로마서 15:7). 우리는 Connect 사역, 새로운 이민자를 위한 사역(예: 330명의 ESL 학생들), 난민 사역(예: Journey Home, House of Omeed)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습니다.

작년, 1284명이 Connect 카드를 작성했으며, 해마다 이러한 사람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 온 교인들 중 약 3분의 1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Willingdon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말 참석자를 추적하여, 2024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예배에 평균 350명이 더 많이 참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장을 동반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과제입니다. 새로 온 교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또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다른 교인들과의 관계를 찾고 있습니다. 작년에 212명이 등록교인이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세례자 수 50% 증가).

물론, 하나님은 우리 윌링던 캠퍼스 너머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37장은 또한 새로운 포도원이 심어질 것임을 알려 줍니다. 2023년 5월부터, 우리 교역자들은 회복을 원하는 한 교회를 위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들 사이의 관계가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오스틴 하이츠 교회는 만장일치로 윌링던 교회 캠퍼스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가을, 하나님께서는 Brett Landry 목사님을 캠퍼스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후, Austin Heights의 예배 참석자는 두 배 이상 증가하여 300명이 넘었으며, 어린이들도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캠퍼스는 2월 2일 부터는 2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Willingdon과 Austin Heights 두 캠퍼스의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나요? 이사야 37장 31절은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성장하고,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5년에는 두 캠퍼스가 제자훈련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우리는 수년 전에 시작된 이 여정에 모든 성도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Discovery 클래스를 통해 제자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디스커버리 클래스에 등록하는 사람이 60% 증가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윌링던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성령이 충만했으며, 사랑으로 연합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였습니다(사도행전 11, 13장).

안디옥은 그 교인들을 열방으로 보냈습니다. 이사야 37장 32절은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수확의 주님께서 메트로 밴쿠버와 그 너머의 수확을 위해 Willingdon과 Austin Heights에서 일꾼들을 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즉, 모든 나라, 모든 언어과, 모든 민족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로마서 15:1-13; 요한계시록 7:9-10).

작년 11월 Prayer Summit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으로 어린아이처럼 “아빠, 다음은 또 뭐죠?”라고 묻는 삶입니다.” (로마서 8:15, 메시지).

“아빠, 다음은 또 뭐죠?” 그것은 기대하는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로 민감하게 분별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 a) 거룩함과 인내로 서로 격려하며
- b)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심을 알고
- c)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인식하며 서로 돌보고
- d)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 e)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을 것임을 확신하며!
- f) 모든 민족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시대의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이 교회가 되기에 좋은 때라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37:32는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라고 끝납니다.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14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죄와 사망과 악의 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묵상 질문

1. 예수님의 포괄적인 비전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준비를 하게 합니까?
2. 여러분은 예수님의 강력한 비전(모든 민족에게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3.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분의 사명에 동참하도록 어떻게 초대하고 계십니까?